

깎아주고 없애주고 ... ‘울며 겨자먹기’ 시·군 출혈경쟁도

전남지역 지자체 기업 유치 지방세 감면 실태와 추이

기업 유치, 개발사업 추진 등에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세 감면이 ‘단골 혜택’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지방세 감면 최대 기간인 3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감면 비율을 서로 높이는 등 출혈 경쟁도 벌어지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어렵사리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도 세금 감면 및 비과세 조치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는 당장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최저 수준인 전남의 시·군들이 최근 산업단지 개발에 나서면서 비과세·감면액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단지 감면 605억원 최고=지난 2014년 전남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은 모두 142개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 939억5217만원으로, 도세 감면 및 비과세 금액인 2903억원7062만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471억6729만원), 일반공공행정(345억3795만원), 농림해양수산(258억9448만원), 사회복지(251억3469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42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604억961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560억5666만원보다 44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에 대한 비과세(275억원),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137억원), 농업인에 대한 과세 특례(112억원) 등도 100억원이 넘었다.

전남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농업·해양수산 부문 업제 및 종사자, 사회복지 수요자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도 있다. 농업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27억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37억원),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9억8000여만원), 영농자금 등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18억원), 한국농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35억원) 등 주로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산업 육성, 지역개발에 나서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지원

비과세·감면 항목만 142개

산업단지 감면 605억원 최고

감면액 매년 100억 정도 증가

을 위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등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농업업 기반을 충실히 하면서도 외부 기업 및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 지역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비과세라는 ‘당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군세 비과세감면액 4년간 286억원 증가=지난 201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도세 2914억원, 시군세 1034억원으로 모두 3948억원이었다. 도세 징수액(6540억원)의 30.8%, 시군세 징수액(7803억원)의 11.7%를 차지했다. 이후 도세의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2828억원, 2012년 2725억원, 2013년 2816억원, 2014년 2903억원7062만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징수액은 2011년 7147억원, 2012년 7470억원, 2013년 7629억원, 2014년 8849억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감소추세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최저 수준인 시·군이다. 시군세는 징수액이 2011년 8656억원, 2012년 8753억원, 2013년 8366억원, 2014년 8662억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1110억원, 2012년 1210억원, 2013년 1242억원, 2014년 1321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비과세의 일부를 보전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민의당(가칭)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장인 조정관(오른쪽) 교수와 서정성 부단장이 1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 시당 창당준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을 위한 6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민과 함께 담대한 변화 시작하겠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 창당대회 앞두고 6대 약속 발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18일 “오로지 광주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를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당 창당대회를 앞둔 준비단은 ▲5·18 광주정신 계승과 공정한 사회 실현 ▲호남 차별과 격차 극복 ▲지역현안 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 ▲정치 기득권 배격 ▲당당한 광주 정치 추구 등 6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조정관 공동 준비단장은 “국민의당은 광주 시민이 만들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당이라고 믿고 있다”며 “시민의 기대가 크다 보니 행보에 대해 비판도, 제언도 많은데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받을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항간에는 국민의당이 기존 국회의원 중심으로 모든 게 짜여지고 기득권 세력이 득세해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현역 의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공평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기대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시당 창당 준비와 함께 이날 현역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기획조정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하는 등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오는 20일께 ‘예비이총’ 성격의 모임 개최를 검토하고 원내 전략을 논의하며 교섭단체 구성 준비까지 본격화했다.

이날 서울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박선숙 집행위원장, 이태규 실무지원단장과 함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현역의원 13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현역의원들이 참여하는 오찬을 통해 오는 20일께 ‘예비이총’ 성격의 모임을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원 모임에서는 여야 쟁점법안과 선거구 확정 협상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방침으로, 국민의당은 선거구 확정 협상과 관련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47석’안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날 조정표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원 3명이 추가로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먼저 탈당한 장병완 국회의원 지역구 출신인 조의장, 유정심·박춘수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새로운 야당을 기반으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장 탈당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김광수 전 전북도 의장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일찌감치 탈당해 전정배 의원 측 국민회의에 합류한 김영남 의원, 지난 6일 탈당한 문태환·김동찬 부의장 등 5명을 포함해 21명 중 9명이 더민주를 나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대표 오늘 신년회전

대표직 사퇴 수순

김종인에 전권 이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당 내외 현안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특히,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 총선 공천권 등 지도부의 권한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즉각 사퇴하는 대신 설 연휴 전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방식 등으로 사퇴 시점을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문 대표의 사퇴 여부는 김영록·박해자·이개호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등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은 선대위원 인선 결과를 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장청, 성별, 지역별 조화를 우선으로 10명 가량의 선대위원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탈당 여부를 놓고 막판 장고에 들어간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선대위 포함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부인사로 입당한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도 선대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지원 “탈당은 하되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사실상 무소속 출마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면서 패배 이후 곧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대표는 18일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 입장 발표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밝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탈당은 하되 어디(당)로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역구 목포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나를 포함해 6명”이라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가족과 보좌진이 모두 내려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 “역대 많은 정권에서 비례대표 4선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됐음에도 경제민주화 문제로 (박 대통령 결을) 나와 버렸지 않느냐”며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공천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친노세력 간에 (한편) 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당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더민주에서 탈당한 의원들에게 당직을 주니까 이태규 실무지원단장이 ‘현역의원 당직과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등 내분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야당)는 분열에는 선수다. 호남을 숙주로 5개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호남의 분열은 필패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뭉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